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0. 08. 23(月)



경제이슈

7월 미국 소비자 물가 4개월 만에 상승
7월 수출입물가 동반 하락

경영노트

기업의 성과를 좀먹는 ‘복잡성’

사회트렌드

베스트 국가, 한국 15위
경제수준 못 미치는 행복지수

차이나 리포트

중국 중서부지역 외자유치 핵심 지역으로 부상

저널브리프

‘린치핀(Linchpin)’이 되어라

洗心錄

아픈 만큼 성숙해지기

이 보고서는 현대그룹 임원들을 위한 경영참고용 자료로서 외부에 공식 배포되는 문서가 아니오니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

□ 7월 미국 소비자 물가 4개월 만에 상승

- 미국 노동부(13일)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상승
 - 상승률 추세 : 소비자물가지수가 4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7월 상승세로 전환.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함
 - 근원 물가 : 변동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전월대비 0.1% 상승
 - 식품 및 에너지 가격 : 식품은 전월대비 0.1% 하락한 반면 가솔린 가격이 4.6% 상승하는 등 전체 에너지 가격이 전월대비 2.6% 상승해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7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3개월간의 하락세를 접고 소폭 상승함에 따라 미국의 경기 회복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우려는 잠시 덜어질 전망이다

□ 7월 수출입물가 동반 하락

- 7월 원화기준 수출·수입물가는 각각 전월대비 0.4%, 0.5% 동반 하락
 - 수출물가: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섬
 - 부문별 수출물가: 농림수산품이 전월대비 0.2% 상승, 공산품은 0.4% 하락
 - 수입물가: 자본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석유류 제품을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며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섬
 - 부문별 수입물가: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자재는 광산품 가격이 내려 전월대비 0.7% 하락했고 중간재는 석유 화학제품 가격 하락으로 0.6% 하락했으며 자본재와 중간재는 각각 1.1% 상승, 0.3% 하락함

- 수출입 물가가 전월대비로는 소폭 동반 하락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수입물가 상승률이 7.5%를 기록하여 국내 물가상승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기업의 성과를 좀먹는 ‘복잡성’¹⁾

- 요사이 기업의 경쟁우위는 경영 활동의 단순화에서 찾아야 함
 - 경영 환경이 다변화될수록 시장(소비자), 공급망, 운영 시스템 등 전반적인 경영 활동의 복잡성이 커지고 관리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서 경영 활동의 단순화가 곧 기업의 경쟁 우위로 작용하고 있음

- 복잡성은 제품 개발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반적인 요소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 증가의 원인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최종 수요가 다양해질수록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R&D, 생산, 물류 및 판매 등 전반적인 과정들이 복잡해져 이에 따른 비용 역시 증가함
 -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각 생산 라인, 부서, 지역별로 단편적인 비용 요소에 집중하게 되어 복잡성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됨
 - 이에 가치사슬 내 각 활동별로 인력, 운영(연료, IT 등), 물류 등의 투입 비용 증감 효과는 물론 전후 활동 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함

- 경영 활동의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용 요소 및 가치 창출에 대한 사전 분석 및 단순화 작업이 필요함

< 복잡성 관리를 위한 사전 분석 및 단순화 작업 >

	내 용
분석 대상의 비용 구조 분석	•비교적 파악이 쉬운 현재의 제품별 비용 및 매출 구조를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복잡성을 야기하는 원인을 최대한 제거
제품별 자산 이용도 분석	•각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자산을 비용 절감 가능 여부, 유연성, 효율성에 따라 고정적 및 유연적 역할로 분류
제품 단위별 편익 분석	•기업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제품군과 20%를 차지하는 제품군을 나누고 각각에 투입되는 자원 및 공급망을 파악
활동별 비용 증가 원인 제거 및 단순화	•생산 요소 및 시스템 별로 복잡성을 야기하는 원인들을 분리하여 파악 •제품 생산 및 운영 과정상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요소들을 단순화하거나 전후 과정과 통합하여 제거 •각각의 복잡성 요소들을 최종 제품의 종류에 따라 몇 가지로 표준화 및 재구성하여 커스터마이징에 대응

1) 본 자료는 ‘Mastering Complexity(BCG, 2010. 7)’를 요약 정리함

:: 사회 트렌드

□ 베스트 국가, 한국 15위²⁾

- 한국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베스트 국가’ 순위에서 100개 국 중 15위를 기록
 - 베스트 국가 1위는 핀란드였고, 그 뒤를 이어 스위스, 스웨덴 등이 2, 3위를 차지. 일본과 미국은 각각 9위와 11위를 기록
 - 프랑스(16위), 싱가포르(20위)보다도 더 높은 순위
 - 교육 부문은 핀란드에 이어 2위, 경제적 경쟁력은 싱가포르와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한 반면, 삶의 질 부문은 29위, 건강 부문은 23위, 정치적 환경 부문은 19위에 그침
-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의 존경받는 10대 지도자 중의 한 명으로 선정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CEO로서 얻은 경험을 국정에 발휘, 한국의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켰다고 평가
 - 이외에 맘모한 싱(인도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영국 총리), 모하메드 나시드(몰디브 대통령), 사르코지(프랑스 대통령), 원자바오(중국 총리), 브라이언 코웬(아일랜드 총리), 실바(브라질 대통령), 엘렌 존슨 설리프(라이베리아 대통령),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사우디 국왕) 등이 선정

□ 경제수준 못 미치는 행복지수³⁾

- 한국의 행복지수는 63.22점으로 OECD 평균(71.25)보다는 8점 가량 낮고, 세계평균(64.06)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한국인의 행복성적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페루 등 1인당 GDP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
 -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덴마크는 80점이 넘음
- 한국인의 행복을 막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 것이 ‘체면문화’
 - 남에게 잘 보이려는 욕망이 큰 사람일수록 행복감이 낮았는데, 즉 남에게 ‘보이는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스스로 ‘느끼는 행복’을 중시하는 사람보다 행복감이 두 배 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됨

2) “베스트 국가 한국 15위”(조선일보, 2010.8.18)

3) “한국인 맞춤형 행복지수”(중앙일보, 2010.8.18)

□ 중국 중서부지역 외자유치 핵심 지역으로 부상

- 최근 중국은 중서부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투자유치정책을 발표
 - 국무원은 8월 19일 「외자유치 관련 부문 간 분업 방안」(이하 분업방안으로 지칭)을 발표하고 외국인 투자를 중서부지역으로 유도하기로 함
 - 최근 중국 동부지역은 금융, 물류 등 서비스업 비중 확대를 통한 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임가공업의 중서부지역 이전이 대세로 나타남
 - 올 7월까지 중국 서부지역에 대한 실제 유입 FDI는 38.9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9.24% 증가하였으며, 중부지역은 38.6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함

- 중국 정부는 중서부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행정서비스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금융을 지원
 - 중국 정부는 외국 자본의 중서부지역 노동집약형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외국기업에 대해 법인세 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함
 - 외국 기업들의 중서부지역으로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행정서비스체계를 정비하고 특히 세무, 외환, 사회보험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편리 제공
 - 또한 금번 「분업방안」은 첨단 제조업, 하이테크산업, 사업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와 환경보호산업을 외국인 투자 유치의 핵심분야로 선정함
 - 중국 국가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은 동부지역의 가공무역 산업을 중서부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300억 위안 규모의 금리우대 대출을 제공할 계획임

- 중국 정부의 외자유치 중심(重心)이 중서부지역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국내 기업들도 이 지역 진출 전략을 적극 마련해야 함
 - 중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낮기 때문에 한계기업들에 회생 기회가 될 전망
 - 또한 중서부지역은 중국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함

□ ‘린치핀(Linchpin)’이 되어라⁴⁾

- ‘린치핀’이란 바퀴를 수레에 고정시키기 위해 축에 꽂는 썰기로서 중요한 사람이나 핵심축을 의미함
 - ‘린치핀’과 같은 사람은 고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조직 시스템 전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

< 조직 내 린치핀이 되기 위한 7가지 제언 >

제 언	내 용
관계를 맺고 연결하는 법을 배워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 린치핀은 자신의 아이디어에 귀 기울일 청증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함 •(제안) 관계 구축 매뉴얼을 버리고 모든 곳에서 믿을 수 있는 진심어린 관계를 맺어야 함
관대해지고 선물을 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 주변에 많은 선물을 나누어주어 자신의 ‘추종자 무리’를 구축하고 더 많은 미래 기회를 확보함 •(제안) 불러일으키는 호감의 효과를 이해하고 더 많은 선물을 제공하는 방법을 찾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함
위대한 예술을 만들어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 린치핀은 주변인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어 훌륭한 일을 해내도록 감정적인 요소를 부여하는데 ‘예술’적인 능력을 보임 •(제안) 자신의 능력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함
현실 안주의 유혹을 뿌리쳐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하고자하는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만족함 •(제안)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에 안주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스스로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함
자신의 업적을 널리 알려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 린치핀은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의지가 높고 자신의 업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스스로의 가치를 제고함 •(제안) 성공의 정의를 심사숙고하여 방향성을 설정하고 효과적인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 성과를 널리 알려야 함
기꺼이 실패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 린치핀이 성공하기까지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음 •(제안)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성공하기 위해 보다 나은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함
배움을 멈추지 말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상) 린치핀이 되는 것은 자신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들기 위한 특성을 개발하는 과정임 •(제안) 린치핀이 되기까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필요한 자질을 배우는 자세가 요구됨

4) “훌륭한 톱니바퀴 되기보다 바퀴의 축을 지지하는 ‘린치핀’이 돼라”(Economy Plus, 2010.8월) 참조

□ 아픈 만큼 성숙해지기

오로지 자기 혼자만 살고 있다면 무척 외로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편함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살아가며 의견을 주고받으며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서로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나는 ‘아’라고 얘기했는데도 남은 ‘어’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어렵고 남이 하는 말을 왜곡 없이 이해하는 것도 어렵다. 사람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스와미 라마의 <히말라야 성자들의 삶>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언젠가 내가 물었다.

‘스와미지, 왜 그렇게 선인장을 좋아하십니까?’

그 분이 답하셨다.

‘난 가시가 가득하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

그들이 꽃피우는 것을 볼 때

내게 큰 기쁨이 온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도 선인장과 같이 각자의 가시를 품고 있다. 그러한 가시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찌르기도 한다. 가시로 찢린 상처로 아픔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아물고 꽃도 피게 된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이 서로 상처를 주지만 타인을 인정하면서 참아준다면 좋은 결과가 기다릴 것이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등산을 생각해보자. 가파른 산길을 오르게 되면 정상에 가까울수록 숨이 차고 힘들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을 참고 한발 한발 나아가서 정상에 도달하게 되면 말도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헤쳐 나가면 달콤한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자, 아픈 만큼 성숙해보자.

길이 멀어야 말(馬)의 힘을 알고,
시간이 오래 지나야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다.

- 명심보감 -